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군)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지해 9, 13-18
[화답송] 시편 90(89), 3-4, 5-6, 12-13, 14와 17(◎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나이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나이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 2독서] 필레 9-10, 12-17
[복음 환호송] 시편 119(118), 135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복음] 루카 14, 25-33

성가	8시 미사	입당 518	봉헌 215 510	성체 166 174	파견 285
	11시 미사	입당 518	봉헌 215 510	성체 166 174	파견 285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23주일(9월 8일)		연중 제 24주일/한가위(9월 15일)		한국순교자대축일(9월 22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글라라(순희)	허세실리아(홍숙)	이바로(명국)	전베로니카(진영)	임루카(승원)	이엘리사벳(자영)
제 1 독서	이바로(명국)	김길베르토(광호)	강요한(신호)	허라우렌시오(순구)	최분도(환준)	최다니엘(대연)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전베로니카(진영)	김안젤라(영선)	허파비올라(옥진)	허세실리아(홍숙)	서테레사(춘애)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버림과 따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둘째,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14,26-27) 셋째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14,33)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 조건들은 하나같이 너무 혹독하고 실천하기에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부모나 형제자매와 처자식,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또한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가능한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글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성령께 기도하며 하느님의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9, 13)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많이 배우고 아는 것도 많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성경말씀처럼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지혜9, 14)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지혜 14, 17)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실천할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앞에 턱없이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은 순간, 우린 비로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림과 따름’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는 ‘버림과 따름’의 삶을 살았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봉독됩니다. 그것은 바로 ‘버림과 따름’을 실생활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옥에 갇힌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협조자였던 필레몬에게 오네시모스를 보내며,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필레 9.17)라고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노예출신으로 도망자인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 달라는 부탁은 필레몬에게는 너무나 힘든 부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고 오네시모스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 안에서 ‘버림과 따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만일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올바른 기도생활

그리스도교인에게 있어서 기도생활은 가장 기본이고 기도 생활을 잘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하느님께 청원기도를 드렸는데, 그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면 더더욱 기도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혹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 내가 생각하는 장소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닌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는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시점에,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장소에서,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이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내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도 하느님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초세기 유대인 철학자 필론은 하느님이야말로 알 수 없는 분이시라는 ‘불가지성’ (不可知性)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지혜서의 저자는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혜 9,13)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개입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선택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바오로 사도는, 오늘 제2독서에서 필레몬의 집을 도망친 하인 오네시모를 다시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며 당부를 전합니다.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필레 8-9) 여기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 당시 만연했던 노예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도 않았고, 사도의 권위로 필레몬에게 교인이 된 오네시모를 선처하라고 강권하지도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애덕(愛德) 실천에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27)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님의 기도’ 를 가르쳐 주

신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루카 11,1-4 참조)

혹시 여러분은 입술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나의 뜻이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나의 뜻과는 사뭇 다른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 받아들이고 자 노력하는 것이 어찌면 오늘날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대 가지 않으려나
가난한 이들의 손 맞잡고
징검다리 건너
행복의 나라, 자유의 나라로

글_류해욱 신부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겨자씨의 비밀 1

불교의 경전인 ‘유마경’에는 수수께끼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겨자(芥)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있다.” 수미산(須彌山)은 불교의 우주관에서 나오는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산으로 해와 달은 수미산의 허리를 돈다고 알려진 상상 속의 성산입니다.

겨자씨는 티끌이나 먼지와 같은 극히 작은 물질을 상징하는 씨앗인데 그 속에 해와 달이 산허리를 돌만큼의 거대한 수미산이 깃들여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던 당나라의 학자 이발(李勃)은 지상(智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유마경에 이르기를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있다.’ 하였는데 어찌 그런 큰 산이 작디작은 겨자씨 속에 들 수 있습니까.” 이발은 평소 독서를 즐겨 독파한 책이 만권이 넘어서자 사람들이 ‘이만 권’이라 칭하였던 당대의 대학자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지상스님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발아, 사람들은 너를 ‘이만 권’이라고 부르지 않더냐. 그러하면 너는 만권의 책 내용을 어떻게 겨자씨와 다름없는 작은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었느냐.”

지상스님의 선답은 알듯 말듯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더욱 알쏭달쏭합니다. 주님도 같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마태 17,20) 겨자씨는 주님께서 말씀 하셨 듯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 (마태 13,32)이지만 이 작은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산을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루카 17,6) 라고 못 박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가톨릭에 귀의한 것이 올해로 25년. 그동안 이 구절은 당대의 학자 이발처럼 항상 저에게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우선 주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면 저는 기가 죽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한 열등한 신자임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부님이 열성적인 신자와 내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신자가 ‘주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잡념 없이 그 뜻을 새기며 외울 수만 있다면 만 원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신자는 자신 있다고 대답하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신부님, 성공하면 얼마라고 하셨죠. 만 원이었던가요 오천 원이었

던가요.” 이 우스개 속의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주의 기도’의 짧은 기도문도 저는 1%의 잡념 없이 끝까지 완벽하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작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인가요. 물론 저는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거나 바다 속에 뽕나무를 심을 만큼의 큰 소망을 바라지는 않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겨자씨 한 개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참을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미사에 참여하고, 묵주기도를 하고, 식사할 때마다 성호를 긋고, 가끔 주님이 주시는 위로에 눈물 흘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용솟음쳐도 주님을 향한 제 짝사랑이 겨자씨보다도 작다면 제가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무에 다를 게 있겠습니까.

가톨릭에 귀의하고 25년 동안 줄곧 마음속에 품어왔던 겨자씨의 비밀이 제 마음속에서 밝혀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겨자씨의 비밀이야말로 ‘씩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 (마태 13,32)로 자라는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계속)

- 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

최인호베드로 | 작가

머무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인간 생명에 대한 지지와 증진은
사랑의 봉사를 통해 완수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에 강하게
대적하고 종종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사랑의 봉사는 특히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87항

가톨릭전례

영원한 삶을 믿는다

1) 개별 심판

인간이 죽을 때,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존속됩니다. 영혼은 불멸(不滅)입니다. 이 영혼은 각자 그 행실대로 하느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 영혼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과 연옥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을 개별 심판이라고 합니다.

- 각 사람은 죽자마자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셈 바치는 개별 심판(사심판)으로 그 불멸의 영혼 안에서 영원한 값을 받게 된다. 이러한 대가는 정화를 거치거나, 곧바로 하늘의 행복으로 들어가거나, 곧바로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022항).-

우리의 일생을 심판받는다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분의 더 큰 자비를 믿기에 신자들에게 심판은 곧 용서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됩니다.

천국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과 완전히 정화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그들은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1요한 #3:2) “얼굴과 얼굴을 마주” (1코린 #13:12) 보기 때문에 영원히 하느님을 닮게 될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023항).

연옥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죄받은 이들이 받는 벌과는 전혀 다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030~1031항).

지옥

교회는 지옥의 존재와 그 영원함을 가르친다. 죽을죄의 상태에서 죽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다음 곧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며, 그곳에서 지옥의 고통, 곧 “영원한 불”의 고통을 겪는다. 지옥의 주된 고통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며 인간이 갈망하는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035항).

현대에 와서 하느님의 자비하심만을 강조함으로써,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어 영원한 벌을 받게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느님을 외면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지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과 관련해서 윤회설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행실에 따라 어떤 이는 극락(우리 표현으로는 천국)에 가고, 어떤 이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이는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써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 갑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연옥·지옥 중에 하나에 갈뿐이지,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한번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기애 참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2) 최후의 심판

각자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개별 심판을 받고 천국과 연옥과 지옥으로 운명이 결정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부활(=진정한 구원, 완성)은 영혼이 새로운 육신과 결합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별 심판을 받고 천국·연옥·지옥에 간 것은 영혼뿐입니다. 그러므로 개별 심판만으로는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써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개별 심판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심판을 받습니다. 개별 심판 때는 각자가 사사로이 심판을 받았지만, 최후의 심판 때는 만인이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뜻 보면 최후의 심판은 세상의 종말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개별 심판을 두려워하듯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최후의 심판 역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죽음 너머에 부활의 삶이 있듯이, 세상의 종말 역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종말의 때를 알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종말이 언제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느님을 뵈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책임들에 성실해야 합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9월 8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임아나타시아(리식)	권글라라
	연 유주호	가족
	연 유주호	육아오스딩/아가다
	연 이베로니카 아버지	서데레사
	연 박돈보스코/피데스	가족
	연 민은기	민제노베파
	연 김두헌	김케넷 가족
	생 사벤자민 생일	서데레사
	생 Terry Franks	김젼마
	생 양마리아	익명
	생 이아가다(윤자)	익명
	생 김우성	송아가다(분학)
	생 김마태오(승한) 생일	김데레사
생 장루시아	전례성가대	
생 김글라라	전례성가대	
생 김스테파노 가정	백미카엘	
9월 10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유주호	가족
	생 성루카	조마리아
9월 11일 수	생 조에스터(미나)	조마리아
	연 부모님	이바오로
9월 12일 목	연 유주호	가족
	생 서아오스딩 생일	서데레사
	생 조에스터(미나)	조마리아
9월 13일 금	연 유주호	가족
	생 서데레사	조마리아
9월 14일 토	생 조에스터(미나)	조마리아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유주호	가족
9월 15일 일	생 조에스터(미나)	조마리아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생 조에스터(미나)	조마리아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3	190	29	312
헌 금	\$504	\$1,200	\$46	\$1,750

< 교무금 > \$2,713

최대연(1-8) 조상희(9) 김순이(9) 전숙희(9)
 채용분(9) 송분학(9) 서춘애(9) 김영순(8-9)
 이정연(9) 허동원(9) 박일신(9) 조우송(9)
 이명란(9) 성동화(7-8) 심재구(9) 양우선(7-8)
 정진희(8) 천종욱(9) 육승주(9) 최용일(7-8)
 김영희(9)

< 성소후원금 > \$290

김순이(9) 서춘애(10-11) 전숙희(9) 채용분(9)
 송분학(9) 정진희(9) 박일신(9) 육승주(1-6)
 이명란(9)

< Bishop's Appeal > \$279

천종욱(9-12) 김세록(1-12)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6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045.28
 * 지난 주 봉헌하신 분 : 김종성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항 -

◆ 추석합동위령미사 안내 : 9월 15일(다음주) 교중미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사봉헌을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 친교실, 사무실

◆ 2차 헌금

9월 15일(다음주) Holy Father를 위한 헌금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구역장회의 : 9월 8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하상회 : 9월 8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평협회의 : 9월 15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뜨개질사랑회 : 9월 15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독서 클럽 모임

9월 8일(오늘) 교중미사 후 103호실
- 9월 도서 : 길에서 길을 찾다(문재상 지음)

◆ 주일학교 학부모 피정

일시 : 9월 8일(오늘) 오후 1시 반
장소 : 성당(점심/베이비시팅 제공)
지도 : 본당 신부님

◆ 성서모임 오리엔테이션

- 창세기 반 오리엔테이션 :
9월 10일(화) 미사 후 친교실
- 탈출기 반 오리엔테이션 :
9월 12일(목) 미사 후 사제관 앞 회의실

◆ 뜨락회 피정

일시 : 9월 14일(토) 오전 8시반 - 오후 6시반(점심제공)
장소 : Vallombrosa Center, Menlo Park
주제 : 나를 찾아서
지도 : 본당신부님

◆ 본당 창립 29주년 기념 및 장학 기금 모금 골프대회

일시 : 10월 5일(토) 오후 1시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Oakland)
참가비 : 남성 \$100, 여성 \$80
- 그린피, 카트비, 기념품 및 저녁식사 포함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 19차 성령대회 강의 CD 예약 및 판매(CD 3장 \$15)

예약 : 천종욱 다니엘 510-684-7207

◆ 9월 Hair Cut 봉사는 둘째 주, 넷째 주입니다.

◆ 지난 주 새로 오신 분

버클리(8-2) 구역 : 탁기영 마르첼리노 가정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오늘 개학
- 주일학교 오전 11시/영어미사 12시 반
- 9월 15일 : 추석 합동미사(주일학교/영어미사 없음)

안국학교 소식

- 9월 14일 : 추석행사
(송편빚기, 소고춤 배우기, 추석놀이 등)
- 9월 21일 : 교내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 10월 5일 : 북가주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